

불금·불토 로맨스 코미디로 에너지 충전

지창욱 X 김유정

편의점 SBS 금토드라마 셋별이

6월 첫 방송

6월, 새 금토드라마 <편의점 셋별이>(극본: 손근주, 연출: 이명우)가 찾아온다.

<편의점 셋별이>는 똑똑한 4차원 알바생과 허당끼 넘치는 훈남 점장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을 무대로 펼치는 예측불허 로맨스다. 지난해 안방극장을 강타한 <열혈사제> 이명우 감독이 선보이는 새로운 로맨스 코미디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열혈사제>를 떠올리게 하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 재기발랄한 패러디 등 유쾌한 코미디의 향연이 펼쳐진다.

파리만 날리는 신성동 편의점에 야간 알바생으로 들어오는 정셋별 역은 김유정이 맡았다. 셋별은 상큼한 미모와 달리 언제 어디로 될지 모르는 4차원 성격의 똑똑한 소유자로, 학창 시절 불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 정의 실천을 위해 힘쓰는 걸크러시 캐릭터다.

편의점 점장 최대현 역은 지창욱이 맡았다. 대현은 웬만한 여자들은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드는 훈남이지만 어딘가 허당기가 있는 캐릭터다. 편의점 본사 홍보팀에 다니다가 2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 편의점을 차린 후 온 식구가 편의점에 매달린다.

대현의 여자 친구이자 본사 홍보팀장 유연주 역은 한선화가 맡았다. 회사의 2대 주주 김혜자(견미리 분)의 딸이지만 실력으로 입사하고 승진한,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다. 결혼의 제1 조건은 '조건'이라 믿는 엄마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대현의 우직함과 순수함, 따뜻함에 반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돈 버는 능력 빼고 다 갖춘 대현의 아빠 용필 역으로 이병준, 고교 시절 지역에서 인기 절정이던 용필을 닮아채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혼 이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온 대현의 엄마 분희 역에 김선영, 고교시절 용필과 같이 그룹사운드 '4대 천왕' 활동을 하며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로 우현, 이윤희, 배기범이 출연하는 등 베테랑 연기자들이 총출동한다.

또 셋별의 동생이자 날라리 고딩인 은별 역에 솔빈, 편의점 본사 오너의 아들로 30년째 연주를 바라보고 있는 승준 역에 도상우, 셋별의 발광여고 3총사 친구로 서예화, 윤수가 출연한다. 한편, 대현의 동창이자 19금 웹툰 작가인 한달식 역으로 음문석이 출연하여 <열혈사제>의 인기를 이어간다.

<편의점 셋별이>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편의점을 배경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 생활 밀착형 에피소드, 청춘들의 꿈과 사랑 등을 버무리며 안방극장에 따뜻한 감성과 유쾌한 웃음을 안길 예정이다.



출장 데이트 컨설팅 박장데소

박나래 & 장도연, '데이트 고민 해결사'로 나선다! 커플 맞춤형 데이트 코스 설계! 신개념 예능

신규 예능 <박장데소>(연출: 장석진)가 6월 13일(토) 밤 9시에 첫 방송된다.

<박장데소>란 '박나래 장도연의 데이트 컨설팅 사무소'를 뜻하며, 자칭 연애 고수인 박나래와 장도연이 일반인 커플들의 의뢰를 받아 '커플 맞춤형 데이트 코스'를 컨설팅해주는 신개념 데이트 예능 프로그램이다.

14년 지기 절친이지만 180도 상반된 연애 스타일을 가진 두 사람은 자신만의 개성과 데이트 노하우를 총동원해 각자의 방식대로 일반인 커플의 취향과 희망 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데이트 코스를 설계한다. 두 사람이 각각 설계한 코스 중 과연 누구의 코스가 일반인 커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지, 두 연애 고수(?)의 자존심을 건 흥미진진한 대결이 주목된다.

직접 발로 뛰는 '출장 데이트 컨설팅'이라는 독특한 방식도 눈길을 끈다. 이 과정에서 '연예계 대표 책임씨'로 불리는 박나래와 장도연이 요즘 가장 핫하고 이색적인 데이트 장소와 놀거리 정보를 매회 소개해 색다른 재미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뻘한 데이트가 아니라 fun한 데이트를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여 기대를 갖



게 한다. 믿고 보는 MC 박나래·장도연의 찰떡 케미와 '커플 사연 맞춤형

데이트 컨설팅'이라는 신개념 예능으로 주목되는 <박장데소>는 6월 13일(토) 밤 9시에 방송된다.

러브FM <이철희의 정치쇼> - <허지웅쇼> - <시사특공대> 시사 벨트 확장 파워FM <붐붐파워> 동시 송출로 오후 활력 충전



6월, SBS 러브FM이 달라졌다. 이번 개편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시사 벨트를 확대하고, 파워FM의 <붐붐파워>를 동시 송출하여 청취자의 오후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4년 만에 방송인으로 복귀한 이철희 전 국회의원 <이철희의 정치쇼>(월~금 09:05~11:00)를 진행한다. 정한성 PD는 "게스트와 진행자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들려주는 형식으로 타 시사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쇼>는 여야 의원들이 이슈에 대한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시사를 구현하고자 한다. 타 프로그램에서 잘 만날 수 없었던 의원들이 고정 게스트로 나와, 게스트 간 케미를 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이 시간대를 맡아 왔던 이재익 PD는 <시사특공대>(월~금



12:05~14:00)로 자리를 옮겨, 시사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시사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이재익 PD는 <시사전망대>, <정치쇼>의 MC 겸 연출을 맡아 시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컬투쇼>, <씨네타운 나인틴>의 DJ 겸 연출로 예능감을 보여주는 등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 이 PD는 시사테이너로서 청취자들에게 딱딱한 시사를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3월 말부터 방송되고 있는 버라이어티 정보 프로그램 <허지웅쇼>(월~일 오전 11시~12시)를 포함해서 SBS 러브FM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철희의 정치쇼> - <허지웅쇼> -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로 이어지는 시사 벨트가 확장, 완성되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파워FM의 인기 프로그램 <붐붐파워>가 러브FM에서 동시에 방송된다. 출연하는 프로그



램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DJ 붐이 진행하는 <붐붐파워>는 이번 2분기 청취율 조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붐의 넘치는 끼와 흥을 그대로 러브FM으로 옮겨와, 청취자들의 나른한 오후를 에너지로 가득 채운다는 전략이다.





<궁금한 이야기 Y> 500회

“Y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여운과 메시지를 남긴다”

- 스토리텔러 김석훈, 김민형

<궁금한 이야기 Y>(연출: 윤성만, 이광훈/이하 Y)가 6월 12일(금) 500회를 맞는다. Y는 사건 이면의 숨은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사연을 세련된 화법으로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면서 SBS 장수 프로그램 대열에 합류했다. 2009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지 만 11년, Y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 Y의 얼굴인 김석훈, 김민형을 만나 봤다.

목소리도 좋지만 발음, 발성이 다 좋다.

김석훈: 연기자는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대사 전달력이 기본이다. 대학 졸업 후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는데 저 끝에 앉은 관객에게도 대사가 명확히 들려야 한다. 그 덕을 보는 것 같다.

신인답지 않게 노련해서 전임자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김민형: 과분한 칭찬이다. 아직 부족함이 많다. 다만, 모자이크나 목음 처리 전의 영상을 보면서 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더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다. 가해자, 피해자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대로 보고 들으며 분노, 의아, 허탈, 안쓰러움과 같은 내 감정들이 내레이션에 그대로 실린다. 같은 여자로서, 한 가정의 딸로서, 동물을 사랑하는 애견인으로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조금씩 나만의 색깔과 느낌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 있나?

김석훈: 아이들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에 전한 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친 사건처럼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 부모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후 남겨진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다. 흉악

범죄자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의 관심으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김민형: 얼마 전 김석훈 씨가 전한 '경비원 최 씨' 이야기가 생각난다. 최 씨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얼마나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었는데 시청자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전해줘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했다. 허수경 씨가 내레이션할 때부터 Y의 애청자였는데, Y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저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고 또 강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 메시지가 지금 나의 목소리로 전해진다는 게 꿈만 같다.

2010년 10월부터 진행을 맡아 만 10년이 되었다. 나에게 Y란?

김석훈: 연기자인 내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될지 몰랐다. 10년이나 할 줄은 더더욱 몰랐다. Y로 SBS연예대상의 진행자상, 방송대상 진행자상도 받는 영광을 누렸다. N번 방 사건처럼 Y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서 이슈화되고 해결이 된 사건이 많다. 그때마다 진행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음악 프로그램은 3년 하면 지루한데, Y는 10년을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매주 새롭다. 이제는 연기자 김석훈보다 <궁금한 이야기 Y>의 진행자로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고맙고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다. Y뿐만 아니라 SBS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국립극단에서 활동하던 나를



<홍길동>으로 캐스팅한 것도 SBS였고, <토마토> 등의 드라마로 더 성장하게 했다. 인연이 깊은 방송사다.

500회를 맞아 한마디 부탁한다.

김석훈: 제작진은 힘들게 뛰어다니는데, 나는 스튜디오 촬영과 더빙만 하니 거저먹는 느낌이라 미안하다. 개인적으로는 험한 사건·사고보다 휴머니즘이 있는 사연을 많이 전했으면 하는데 사회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제 500회이니 1000회, 2000회까지 장수하길 바란다. 나 역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할 것이다.

김민형: 10년을 함께했다는 석훈 선배님이 부럽고 존경스럽다. Y와 함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어떤 내용을 전하게 되는지 작가님이 보내주는 문자가 기다려질 만큼 애착이 생겼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서 “Y는 김민형이지!”라는 말을 듣고 싶다.



모비딕 스튜디오, 하반기 신규 라인업 공개

모비딕이 하반기 신규 프로그램 라인업을 공개했다.

5월 1일(금) 처음 공개된 <초아웨이의 입어보기>(연출 정준기)는 MZ세대를 위한 패션&뷰티 스타일링의 모든 것을 다루는 콘텐츠다. 모비딕 MCN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크레용팝 초아와 웨이가, 쌍둥이의 강점을 살려 똑같은 생김새로 정반대의 스타일을 소화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뷰티&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와 커머스 등 다양한

연계 비즈니스가 기대된다.

6월 4일(목) 프롤로그를 공개하는 <제시의 SHOW!터뷰>(연출 김한진)는 모비딕 회심의 카드다. 기상천외한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온 모비딕과, 예측불허의 매력을 지닌 제시가 만나 차원이 다른 인터뷰 콘텐츠를 탄생시킨다. 배우 김영철, 마마무 솔라 등 화제성 높은 게스트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월 말 공개 예정인 펫큐멘터리 <댕댕아 모하냥>(연출 김경태)은 '반려동물과 집사의 교감 예능'이라는 새로운 포맷을 선보인다. 소녀시대 유리, AOA 찬미 등 화려한 집사 라인업도 화제다. 반려동물의 시점에서 스타의 일상을 엿보는 신선한 구성은 물론, 반려동물과 아이들의 케미를 통해 훈훈한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철희의 타짜

6월 4일(목) 첫 방송... 첫 게스트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연



제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정치 변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을 해소해줄 새로운 시각의 정치 토크쇼가 첫 선을 보인다. 6월 4일(목)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이철희의 타짜>는 SBS플러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본격 정치 토크쇼이다. 방송과 정치 고수 이철희와 정치계 새 얼굴 김용, 야심차게 정치에 도전장을 내민 김한규 변호사가 친구, 여야를 막론한 과감하고 색다른 토크 배틀을 벌인다. 첫 회 게스트는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다.

5월 14일(목) 경기도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첫 녹화에서 이철희는 균형을 잡으면서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또한 김용의 열정과 김한규 변호사의 재치가 어우러져 최고의 '정치 토크쇼' 탄생의 열쇠를 열었다. 게스트 이재명은 시종일관 냉철하면서도 위트 있는 입담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철희의 타짜>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공감 토크로 정치 토크쇼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SBS - 인제군, '2020 인제 오리지널스 페스티벌' 업무 협약서 체결

SBS는 5월 12일(화) 강원도 인제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남형석 SBS 콘텐츠파트너십팀장, 고성주 2020 인제군 오리지널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를 기원하는 2020 인제 오리지널스 페스티벌 (이하 페스티벌)'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제군이 주최하고 2020 인제 오리지널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SBS가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는 '2020 인제 오리지널스 페스티벌'은 오는 9월 19일(토), 20일(일) 이틀간 인제 잔디구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대학생 및 직장인의 참여는 물론, 평화지역 이미지에 맞는 군 장병 및 가족 참여 행사, 국제

행사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참가 범위를 국내에서 아시아권으로 확대해 수준 높은 국제음악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9월 19일(토)에는 인제잔디구장 특설무대에서 본선 12개 팀으로 선정된 직장인 밴드가 펼치는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20일에는 국내외에서 선정된 본선 12개 팀이 열띤 경합을 펼치는 '아시아 대학 팝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유명 초청 가수의 공연과 개그 페스티벌, 2024년 프랑스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비보잉 무대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형석 SBS 콘텐츠파트너십팀장 / 최상기 인제군수



BTL사업의 도약을 시작하다!



콘텐츠솔루션팀 안민호 팀장, 김영범 전문위원, 김정희 대리, 유성진 부장

SBS M&C는 다소 주춤했던 BTL사업을 작년부턴 재추진하여 1년 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BTL사업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의 오프라인 행사 대행 업무가 주를 이루나, SBS M&C는 SBS 미디어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홈케어 브랜드 '셀리턴'에 BTL 기업 행사까지 포함한 마케팅 제안을 하여 광고주 만족도를 높인 바 있으며, 올해 초 SBS 마케팅솔루션팀과 협업한 '문체부, 뿌리를 가꿉니다' 프로젝트에서도 BTL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5월

에는 <인기가요>, 유튜브 채널 <스브스케이팝>, 라디오, 모비딕 등 SBS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20억)을 수주하면서 BTL 솔루션 역량 강화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개별 수주 사업으로는 2019년 하반기 공공기관 입찰 분야에서 '2020년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행사 대행 용역을 수주하였고, 올해 4월에는 한국관광공사의 '2020 DMZ ICT 공연 페스타',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101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그리고 춘천시에서 연간으로 진행되는 '춘천시 호수나라 물빛축제 멀티미디어쇼'까지 3건 약 85억(전체 용역 기준) 규모를 수주했다. SBS M&C 콘텐츠솔루션팀의 BTL셀은 "그룹 관계사와 SBS M&C 간의 협업 수준을 한층 높여 기존 이벤트 행사 대행 사업 외에 전시, 공연, MICE, Space사업 분야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공헌 프로젝트 8번째 결실 - 옥천군 청산지역아동센터 완공

6월 3일(수), '희망TV SBS'는 굿네이버스, KLPGA, 옥천군과 함께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을 진행했다. 완공식에는 김유석 SBS Golf 대표, 김재종 옥천군수, 김유 메디힐 전무, 김용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김순희 KLPGA 전무이사, 성영준 SBS 사회공헌 담당 등이 참석했다. 옥천군 청산지역아동센터는 '희망TV SBS'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이번 건립을 위해 SBS골프 채널과 메디힐, KLPGA에서 '드림워드버디 캠페인'을 통해 총 2억 8천만 원의 기금을 모아 전달했으며 동국제강, KCC에

서는 건축자재를 지원했다. 또한 옥천군은 기금과 함께 270㎡(80평) 면적의 부지를 무상 지원했다. 농촌 지역은 교육 기관 및 아동 돌봄 시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역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동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옥천 청산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 돌봄에 필요한 프로그램실과 놀이방, 조리실 등이 갖춰졌으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마당'도 조성됐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완공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8곳이며, 현재 경북 영양군과 경남 함안군에 건설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9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